

웃둥 보살 빛둥 거사 <21>

구성 : 김흥민



한 개의 콩 때문에 많은 콩을 잃은 원숭이 [백유경(百喻經)]



옛날 원숭이 한 마리가 콩 한 줌을 들고 있다가 잘못해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곧 손에 쥐었던 콩을 버리고 땅에 떨어진 한 개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그 한 개도 찾지 못하고 먼저 버린 콩은 닭과 오리가 모두 먹어 버렸다. 집을 떠난 범부도 그와 같다. 처음에는 한 가지 계율을 범하고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방일은 더욱 더 뻘어 가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그것은 마치 원숭이가 콩 한 개 때문에 콩 모두를 버리는 것과 같다.

옛 판화의 세계

가섭존자가 법을 부촉하다 가섭부법(迦葉付法)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마하가섭 존자가 아난에게 법을 전하는 장면이 한 쪽의 산수화를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문에 보면 마하가섭이 열반에 들러 할 때 가장 뛰어난 법을 아난에게 부촉하며 말했다. "장로여, 알지이다. 예전에 세존께서 법을 내게 부촉하셨다. 내 나이가 늙어 몸이 못쓰게 돼 곁 열반에 들려한다. 세간에서 가장 뛰어난 안목을 지금 그대에게 부촉하고자 하니 그대는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 이 법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아난이 답했다. "좋습니다. 오직 그렇게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에 아난은 묘법을 설하며 모든 중생들을 교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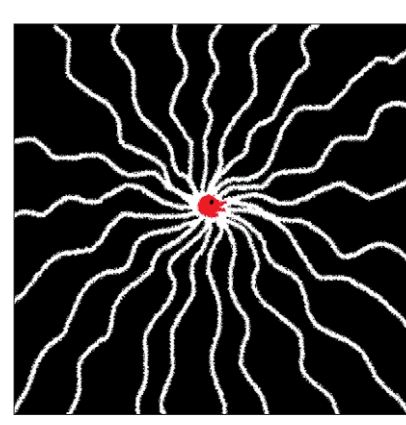


고려시대 불교도상 <석씨원류(石氏源流) 중 가섭부법(迦葉付法) > (민국(年) 272 × 180cm)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법의 사자상승의 전통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이 사자상승은 제1세 마하가섭 존자, 제2세 아난다 존자, 제3세 상나뢰수 존자, 제4세 우비국다 존자, 제5세 제다가 존자, 제6세 미차카 존자, 제7세 바수밀 존자, 제8세 불타난제 존자, 제9세 북타밀다 존자, 제10세 협 존자, 제11세 부나야사 존자, 제12세 마명 존자, 제13세 가비마라 존자, 제14세 용수 존자, 제15세 가나제바 존자, 제16세 라후라다 존자, 제17세 승가난제 존자, 제18세 가야사다 존자, 제19세 구마라다 존자, 제20세 사야다 존자, 제21세 바수

반두 존자, 제22세 마나라 존자, 제23세 학루나 존자, 제24세 사자 존자, 제25세 바사사다 존자, 제26세 불어밀다 존자, 제27세 반야다라 존자, 제28세 보리달마 존자, 제29세 신평해가 조사, 제30세 감지승찬 조사, 제31세 대의도신 조사, 제32세 대만홍인 조사, 제33세 대감해능 조사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가섭에게 전한 불법이 인도와 중국의 33 조사들을 거쳐 전해진 이 법맥은 우리나라에서도 도도히 이어지고 있다.

선학스님(명주사교편화박물관장)



허허당의 세상만사

■ 붉은 우주의 심장
확실한 예감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정신이 우주를 꿈이라 역설했지만 인류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물질이 우주가 꿈을 말 하리라 과학의 최정상은 우주가 하나의 꿈이란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황금털사자의 미미소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眞面目을 전시로 읽다.



선의 중흥조 경허 스님에서 고암 스님까지 12명 걸승들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전시의 '완전 이해'
<황금털사자의 미미소>는 한국 현대 문단에 전시의 이론을 세운 독보적 존재 송준영 시인이 12명 선사들의 삶과 수행의 핵심을 소개한 노력입니다.

[송준영 지음 / 여시아문 펴냄 / 575쪽 / 25,000원]

